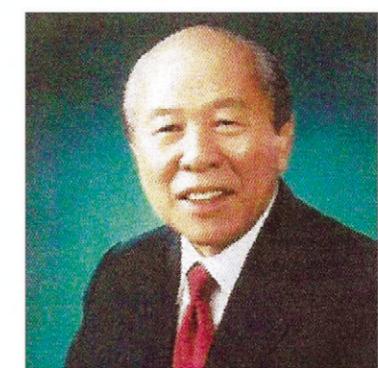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것이 침향이다



저자 김 영 섭 원장

내 몸을 살리는 침향의 놀라운 비밀

김영섭(백운당한의원 원장) 지음

새롭게 선보이는 침향 이야기

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신비한 침향의 성분과 약리작용!



新
方
得

종로지널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제919호>
주간신문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발족 예정

전직 장관급 위원장으로 위상과 기능 강화

전문가 30명, 원로 20명 등 50명 예상

11월 중 인선 마무리, 12월 위촉식 거행 예정

전직 장관급 인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되는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가 구성된다.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가 기대되어 주목된다.

지난 14일 종로구는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열린 종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의가 통과된 후 이번에 종로구가 본격적인 구조계획을 수립, 추진에 나선 것이다.

정문현 민선 8기 종로구청장의 구정 철학과 연계한 종로구의 미래지향적 주요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면서 각계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다. 이를테면 구청장의 구정 자문 기구인데, 전임 김영종 청장 시절 운영됐던 ‘종로구 비전위원회’와 같은 형태이지만 기능과 역할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종로구는 최근 최대



담당한다. 종로구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규정책 건의와 행정업무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는다. 물론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주요 정책 및 역점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는다.

위원회는 따라서, 연 2회 전체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 인수 및 성과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임시회의 및 분과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분과위원회는 종로구청 국 단위에 따라 4개 분과로 나눠 구성하는데, 문화관광, 미래도시건설, 안전환경, 보건복지 분과 등이다. 분과별 7~8명 위원으로 구성한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호선한다. 원로협의체는 종로구 원로급 인사들로 구성하여 미래도시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간담회 방식으로 정기적 자문을 한다. 종로구 각동 별 1명의 원로 인사들이 위촉되어 원로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특히 종로구는 이번에 구성되는 미래도시위원회와는 별도로 전문가 중심의 특별자문위원회도 위촉할 예정이다. 약 50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자문위원회는 구정 긴급현안 및 특별한 사안을 자문

5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문화예술관광과 교육, 복지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대표 등 30명과 함께 종로원로협의체 20명을 인선해서 모두 50명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정 긴급현안 및 특별한 사안 발생 시를 대비한 특별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종로구의 미래지향적 비전과 목표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운종가

■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되돌아보며 지나온 길만큼 애독자 제현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기대(!)

■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 위해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발족 예정. 배가 산으로 가는 발상의 전환 필요(?)

■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떠나간 후 냉그라미 남은 청와대와 다시 찾은 송현동 시민 공원이 새로운 종로 랜드마크 되길()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종로저널 창간 30주년 기념사

“종로 풀뿌리 정치문화 창달”



아주 우연한 길이었다.
어쩌다 들어선 아주 생경한 길이었다.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부활하겠다는 선언에 들어선 길이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에서의 지방자치가 제1차적 호기심이었다.
중앙집권적 정치 문화가 어떻게 지방자치로 이행되는지 궁금했다.
전통적 주도 세력이 어떻게 지방자치에서 변천되는지 알고자 했다.
오랜 기득권 세력 대 새로운 자치 세력의 경쟁이 흥미를 유발했다.

그렇게 30년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이 시나브로 갔다.
산전수전 공중전 그리고 ‘감옥전’ 까지 치르며 흘렀다.
젊음도 인생도 가고 산천도 바뀌면서 신화와 전설만 남았다.
그래서 종로 자체 30년이 소중한 기록으로 널리 남겨져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 지역의 자유와 평등은 하구였다.
중앙집권적 주도 세력의 군림과 지배가 팽배했다.
인간의 자연권적 권리 문화가 은연중 철저히 무시됐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가 요원한 비민주주의적 시대였다.
주민의 참여와 선택의 풀뿌리 종로 정치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가 비로소 정치의 영역으로 인정받기 시작된 것이다.

“30년 애독자 성원, 진심으로 감사”



종로 풀뿌리 정치가 종로주민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평등주의가 등장하고 자유와 권리의 개념이 생성됐다.
주민 권리를 회복하며 주도 세력이 변천하기 시작했다.
참여와 선택으로 자유, 평등, 권리를 누리게 된 것이다.
이른바 종로 사회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아주 우연히 들어선 길에서
결코, 짧지 않은 30년 세월 속에서
종로 자체를 통해 나타난 학습 효과는
종로 민주화라는 소중한 역사적 문화가치가
단연코 정치의 영역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종로저널은 지방자치 속 풀뿌리 정치를 담았다.
종로자치는 단순한 행정 차원의 문화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선택의 풀뿌리 정치문화 요체로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 회복하고 증진시키는
소중한 종로 사회 민주화임을 입증하는 기록이다.

작은 진실이어서 아름다웠고
소중한 서사에서 더욱 의미깊고
대한민국 첫 동네, 심장부 이야기에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남기게 되어 기쁘다.
전설같은 종로의 풀뿌리 정치문화가 창달되길 기원한다.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맞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민족들의 이야기와
기억같은 인물들의 종로자치 역사를 기억하며
애독자 제현의 변함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의회와 시민을 더하면 희망이 됩니다

11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새롭게 출발합니다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정문현 종로구청장



“특별한 소감은 없습니다. 단지 개인적 시간이 없어 무척 바쁠 뿐입니다.”

지난 14일 종로구청장실에서 만난 정문현 종로구청장은 민선 8기 종로구청장 취임 100일이 지난 소감을 묻는 질문에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답변한다.

“정신은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기 보다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바쁘게 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정구청장은 지난 7월 1일 자로 종로구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한 후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는 자신감 속에 100 일을 후다닥 넘겼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 종로에 대한 애정과 애착으로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살피는 모습이다.

“두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입법부 활동을 벌이다가 이번에 집행부 일을 담당하는 것이 달라진 것이지만 모두가 공직자로서의 책무이기에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정구청장은 제17대와 제19대 국회의원을 놓았다. 그리고 지난 6.1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됐다. 그러니까 입법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에는 종로구 지방자치를 이끄는 집행부 수장이 된 셈이다. 그래서인지 정구청장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더군다나 자신이 태어나 자라고, 학창 시절을 보낸 고향 종로이기에 더욱 소중함과 사명감을 갖는 모습이다.

정구청장은 종로에 대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문화적 특성을 그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종로구 자치행정에 대한 슬로건이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다. 종로의 명성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지만 종로의 현실은 담보 내지는 뇌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종로를 완전 ‘뛰어엎겠다’는 각오로 종로구청장에 나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정구청장은 종로구청장 취임 이후 종로의 역사적 전통문화 보존과 재현을 위한 구정에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산만하게 전개된 여러 동네 축제를 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고궁과 인사동을 비롯한 전통문화 창달과 대학로의 현대 짙은 문화를 아우르는 조화를 통해 문화 1번지 종로의 위상을 확고히하겠다는 방침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올바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종로 자체에 대한 쇄신작업도 전개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정 직원들에 대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과감한 인사교류를 시도할 방침이며, 직원 간 화합 단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다 균형적인 인사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힌다. 주민자치 차원에서도 각 동 주민자치회 또는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을 듣는 것만큼 뜻깊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구민들과 소통하며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제 취임 후 겨우 100일이 지난 만큼, 임기를 다하는 순간에는 ‘종로의 문화 1번지 위상을 확고히 한 구청장’으로 남고 싶습니다.

▶ 종로구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평가는?

많은 구민이 청와대 이전으로 정치 1번지 종로의 위상이 훼손되는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종로는 정치 1번지에 앞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이끈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1번지입니다. 청와대가 이전했다고 하지만 종로구에는 여전히 주요국 대사관들이 모여 있고 많은 국가가 주요 기관들이 존재하며, 도성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재가 자리한 대한민국의 1번지로 그 위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로구 지방자치와 관련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 시대’의 추진과 민선 8기 출범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등 세 가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 100일간의 소감?

취임 후 주요 정책의 골격 마련과 주민·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 17개 동



으로 정하고 주민들께 네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인류문화의 본(本)’, 둘째, ‘세계교육의 본(本)’, 셋째, ‘미래 혁신의 본(本)’, 넷째, ‘화합포용의 본(本)’입니다.

내년은 미래문화의 산실로서 ‘세계의 본(本)’이 되는 종로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탁월한 구정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벨트 구축

서울의 문화재가 집중된 종로구는 비유하자면 전 지역이 역사 현장으로 거대한 박물관과 미술관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로 인해 서촌과 북촌 사이 통로가 막혔지만 때마침 이 길이 개방되면서

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종로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미래교육 플랫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이들 교육여건 개선이 필수요소입니다. 미래교육 플랫폼을 통해 종로구민의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의 ‘서울런’과도 연계하여 종로구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창신 미래도시 프로젝트

관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타 자치구들에게 역전을 허용하는 쳐지였습니다. 주거인구와 소비인구는 줄고 암뷸런스도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낙후됐습니다. 시내 거리에는 가게마다 ‘임대’ 짙지가 불을 정도로 상권도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와 함께 10여년 새월동이 종로의 인구가 특히 크게 감소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취임 후 구민 여러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은 “종로를 새롭게 바꿔 달라”는 신신당부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를 위한 맞춤형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종로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종로저널 창간 3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종로저널』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로의 한 중심에서 정론직필을 추구하고, 종로 곳곳의 소식을 전하며 구민으로부터 큰 믿음과 신뢰를 받고 있는 종로저널이 어느덧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종로저널의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종로저널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종로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등 지역사회와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리며 종로 발전을 선도해왔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건전한 비판과 바른 대안으로 종로저널이 지역의 대표 언론사로 자리매김 하기까지는 이병기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종로저널이 구민과 함께하는 신문, 정감 있는 소식과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언론사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李)

“주민 소통 강화로 구정 신뢰 높일 터” “내년을 종로 미래문화 산실 원년으로”

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협의체 등 주민들이 주도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줌(Zoom)’을 활용해 매주 정기적으로 관내 홀몸 어르신과 온라인으로 마주보며 안부를 묻고 소통하며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사항들에 대해서는 줌을 통해 구민들 말씀을 직접 경청하는 구민소통실 비대면 화상회의도 운영해 복지 및 민원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이 중요합니다. 공감은 신뢰에서 나오고, 주민들과 신뢰를 구축하려면 소통이 우선돼야 합니다. 구정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말씀

여권 보장과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재정 분권의 주진을 위한 국세·지방세의 구조 개선과 지방세입의 확충도 필요할 것입니다. 종로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제도가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정과 더불어 종로구의 자치분권과 자치행정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2023년도 종로구 신년 구정 방침은?

취임 초부터 주요 정책의 골격 마련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로는 현재 종로구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本)’이 되는 종로’를 새비전

종로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기본 환경 조성

재개발 사업 단일화로 창신미래도시 추진

종로의 문화자산들이 하나의 거대한 문화벨트 안에 놓이게 됐습니다.

평창동·경복궁·청와대·인사동·창덕궁·창경궁·종묘·대학로·공연예술거리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관광벨트가 형성됐으며, 청와대를 통해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 산로를 활용해 관광객들이 종로 곳곳을 걸어서 누비며 관광할 수 있는 보행 중심의 관광벨트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종로는 전통과 포스트모던, 그리고 초현실주의까지 모든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궁과 국립현대미술관, 인사동 갤러리 등 이를 자산이 잘 어우러지고 융합될 수 있도록 종로구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관광거점을 발굴하고, 거점의 연계성을 고려한 테마 관광코스 개발, 그리고 콘텐츠의 관광상품화를 통

거론되는 창신·송인동 일대의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을 하나님의 단일사업으로 통합한 창신미래도시로 추진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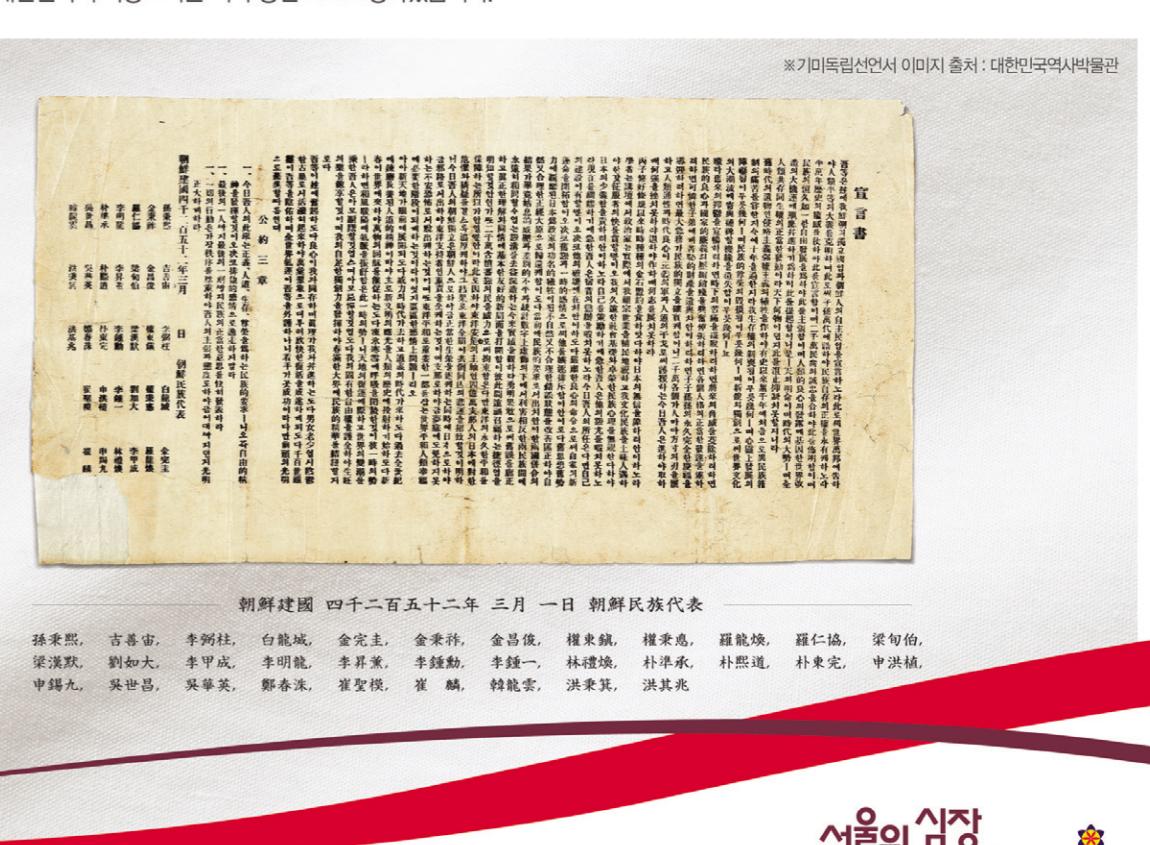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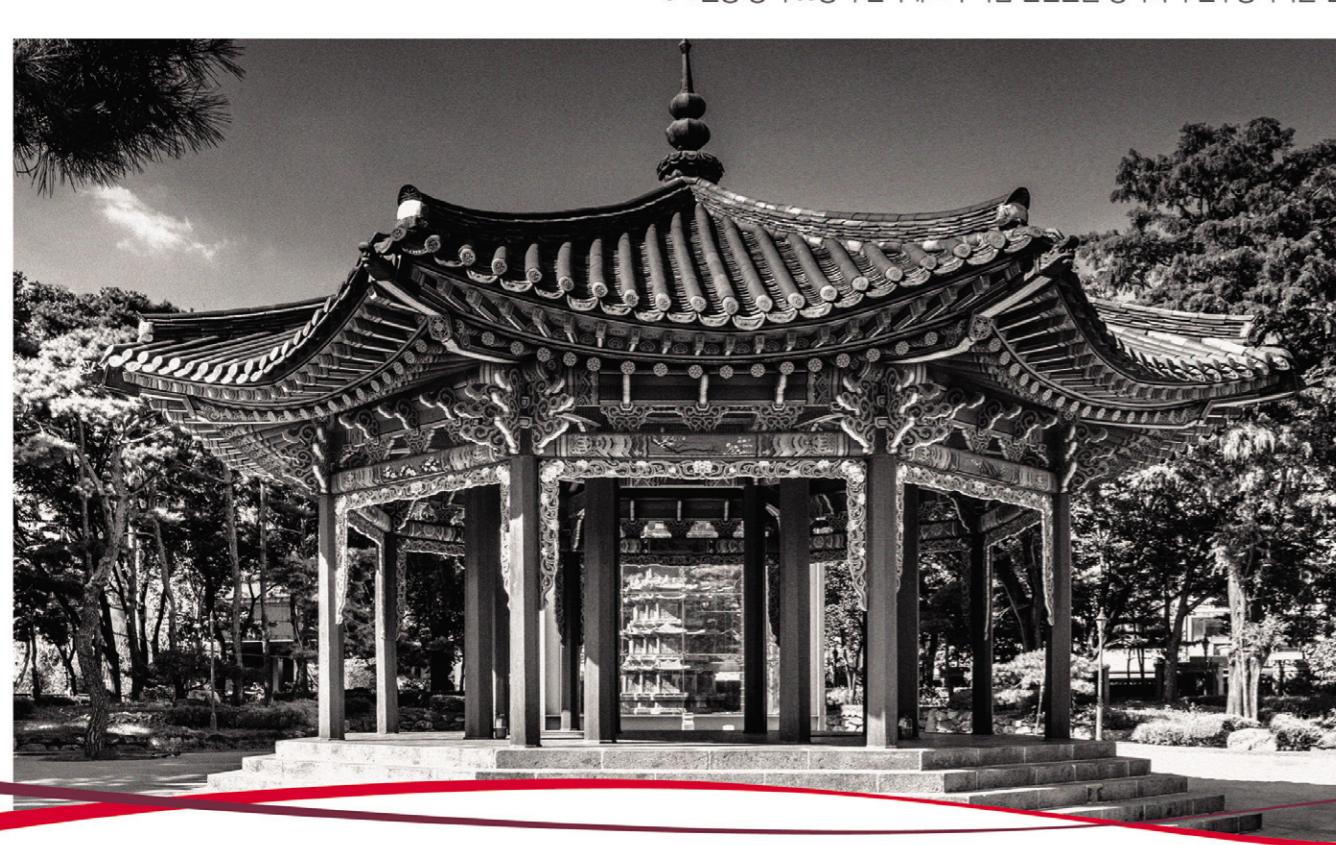
청계천 밑으로 창신동 재개발지역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지하를 연결한 지하도시 구축, 아쿠아리움 및 공연 테마널 등을 조성해 강남의 코엑스와 견줄만한 초대형 미래도시를 만들어 인근 재개발 예정인 세운상가와 함께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그리려 합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종로구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신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시 뛰는 종로에 대한 구정 철학 의미는?

지난 십수 년간 종로는 명색이 ‘정치 1번지’라고 하면서 생활 수준은 오히려

탑골공원,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3·1운동의 발상지

탑골공원은 과거 원각사(圓覺寺)가 있었던 곳으로 광무황제 즉위년(1897) 서울의 첫 공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3·1운동 당시 33명의 민족대표가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며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탑골공원,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종로저널 창간 30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②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의회 실현”

종로구의회 라 도 균 의장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구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낮은 자세로 현장을 직접 뛰는 주민 중심 의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7월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라도균 의장, 당직을 바꾸며 의장에 선출된 리스크를 극복하며 취임 3개월을 보냈다. 그동안 제31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15회까지 세 번의 임시회를 개최하며 간신히 원 구성을 마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장을 공석으로 남긴 숙제를 안고 있다.

라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 제9대 종로구의회를 이끌고 있다. 종로구청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정년 퇴임하고 곧바로 구의원 선거에 뛰어들어 지난 2018년 제8대 구의원에 이어 올해 제9대 구의회 재선에 성공한 특별 케이스로 나름의 내공이 쌓인 실력자이기 때문이다.

‘구청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큰 자산인 것은 주자의 사실입니다. 집행부의 기능과



▲종로구의회 라 도 균 의장(사진 왼쪽)이 인터뷰 중 환하게 웃는 모습.

“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의 자치분권 확립”**“의원 역량 강화로 실력있는 의회 위상 구축”****“대민홍보 통해 신뢰받는 의회 모습도 견지”**

역할을 알면서도 동시에 집행부 구성원의 애로사항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의회와 조화롭게 융통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라 의장 스스로의 전망대로 이에대한 구민의 기대도 매우 큰 편이다. 그동안 종로구의회 의장은 모두가 종로구 지역 사회에서 일해 온 봉사자뿐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 봉사자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열의가 뜨겁지만 기초 지방자치에 대한 매커니즘이 대해서는 다소 문외한임을 감안하면 라 의장은 집행부와 구의회 간의 매커니즘을 보다 효율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 의장은 그래서인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세 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 첫째가 바로 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구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 시행됐기 때문에 라의장은 구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인사권 독립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의장 취임 이후 30년 동안 속기사들의 염원이었던 승급 문제를 해결, 7급 직원을 6급으로 승진시켰다. 아울러 구의회 정책지원관을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증원시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구의회 사무국장

을 개방직(서기관)으로 공모하여 기초의회 발전의 신기원을 준비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구의원 교육 강화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말처럼 구의원들이 보다 정확히 그리고 세밀히 의정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체적 교육을 강화하여 실력있는 구의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의원들의 구정 질의 내용과 방식 측면에서 보다 전문화를 이루면서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 목표는 대민홍보 강화다. 라 의장은 최근 승인동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지역 주민들과 협안 문제에 대해 협심 탄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민과 서로 원활하게 소통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지난 제7대 의회에서 맨 처음 시도하여 호평을 얻었던 프로그램인데, 이를 라 의장이 전격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주민과 진심어린 공감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결론적으로 종로구의회를 능력있고 신뢰받는 구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민토론회도 개최할 생각이며, 의원 연구단체도 보다 활성화시켜서 지역 협안과 주민 속원 과제를 정책적으로 살펴서 대안을 마련하는 구의회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李)

라 의장은 기본적으로 기초의회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전전을 기할 각오라고도 밝힌다.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의 낭비 요소는 없는지 등, 주민의 혈세가 바르게 사용되도록 꼼꼼히 살피는 일도 철저히 임할 방침이라고 전한다.

이른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계율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이쯤되면 라 의장의 향후 종로구의회 의정 방향은 지방자치에서의 교과서적인 내용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종로구의회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되면서 새로운 활성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라 의장이 지난 경력과 노하우 그리고 강한 봉사적 신념과 실천적 자세가 관건으로 다가온다.

라 의장은 끝으로 본지 창간 30주년 축하했다.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로구 지방자치 역사를 함께 하면서 주민 권리 증진에 큰 기여를 해 온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종로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종로구의회와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이루리라 기대합니다.” (李)

종·로·사·람·들

최재형 국회의원
성과마을 축제 참석



최재형 국회의원(종로구,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하나되는 성과마을 협치사업단’이 주최한 제2회 성과 마을 문화예술 축제에 참석, 주민 화합 및 소통의 장을 이뤘다.

라도균 종로구 의장
제316회 임시회 실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종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창혁 문화원장
장남 최성국 화족 거행



최창혁 종로문화원장은 오는 11월 5일(토) 오후 5시 종로구 부암동 HW컨벤션센터(하림각) 2층 그랜드볼룸에서 장남인 영화배우 최성국 군의 결혼식을 거행한다.

홍성덕 회장
평화통일 아카데미 개설



홍성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장은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서울시 제3호 종로거점형 키움센터에서 2022년 어린이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수상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달 30일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복지 기여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07년 개관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15년간 종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크게 인정받은 것이다. 어르신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서울시니어연극제를 개최하고, ‘우리동네 마을밥상’과 ‘시니어슈퍼스타 종로’ 등을 개최하여 어르신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노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플러스카페 운영 등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일의를 담당했다.

유광중 대표이사
종로문화재단 취임



이종환 종로지회장
당원 단합대회 개최



(재)종로문화재단이 지난 9월 신임 대표이사 공개 임용 절차를 거쳐 유광중 응모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결정하고 지난 1일 차자로 임용했다.

정영국 이사장
학술대회 개최



조기태 회장
세종 축제 실시



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 내외
동포정보센타 이사장은 오는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세계한민족 회의 및 KIC 밤기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종로저널 애독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지로입금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종로저널 임직원 일정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의장**

라 도 균 의원

부의장

이 광 규 의원

위원장

이 시 훈 의원



이 응 주 의원



김 하 영 의원



김 종 보 의원



이 미 자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 재 호 의원



이 광 규 의원



이 미자 위원장



박 희 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 하 영 의원



여 봉 무 의원



이 룬 구 의원



김 종 보 의원



이 시 훈 의원

건설복지위원회

전통과 문화의 종로 미래를 여는 의회
종로구의회



▲ 사진은 맨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김기찬 황해도지사, 권영해 전 국가정보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70년 분단 한반도 통일 기원”

경주 통일전 ‘제44회 통일서원제’ 개최

김기찬 황해도지사 등 1,500여 명 참석

김기찬 황해도지사가 지난 13일 경주 통일전에서 신라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제44회 통일서원제’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사를 비롯한 경북도지사와 주나영 경주시장, 시·도의원, 기관·단체,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신라 고취대 공연을 시작으로 현화·분향, 서원문·결의문 낭독, 도립무용단 ‘화랑’ 갈라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이 통일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하며 의지를 다졌다. 광장의 한반도 지도에 5,000송이 무궁화를 끊어 행사의미를 더했다.

‘통일서원제’는 지난 1979년에 시작됐으며, 신라가 매소성전투에서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완수한 10월 7일을 전후해 매년 열린다.

1977년에 건립된 통일전에는 삼국통일에 공을 세운 신라 태종무열왕, 흥무대왕, 문무대왕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이와관련, 김기찬 황해도지사는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이며, 반만년 역사 속에 길이 빛나는 대업이다. 우리 민족의 몸속의 DNA에 각인된 한민족의 힘으로 통일의 역사를 다시금 재연하여 70년 분단의 한반도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찬 황해도지사는 이북5도 위원회의 역할인 남북한 평화 시대 이북도민 역할을 강화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며, 북한 지역의 무형문화재를 발굴, 육성하는 등 이북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축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세금문제 해결의 명가 이촌(理村)세무법인

www.e-chontax.co.kr

기장 및 세무신고 대리
결산 및 세무조정업무
세무조사 수임 대행
절세컨설팅(Tax Planning)
-양도·상속·증여세
-법인·소득세 등

▶ 주요경력(세무조사 등 실무경험 풍부, 국세청 34년)

- 종로·강서·성남·삼척세무서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장, 국세청 조사국 정보관리과·감사관실
- 세무학석사(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현 박사과정)
- 현. 현대B&G스틸(현대그룹) 사외이사
현. 아시아미래연구원 상임감사

이촌(理村)세무법인

대표이사 박 외 희(29기)

(세무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13(청진동 136) 삼공빌딩 8~9층, 11층

TEL : (02) 735-5780~2, 735-0114 FAX : (02) 735-5783

H.P : 010-3563-7210

E-mail : garite@hanmail.net

종로저널 창간 30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③

“삶의 기본조건이 균등한 사회 추구”

곽 상 언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장

“대한민국 1번지 종로구 지역위원장을 맡은 것이 매우 가슴 벅차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대회에서 종로구 위원장으로 공식, 족인되어 종로 사회 등장한 곽상언 위원장(변호사), 그는 천천히 그리고 겸손하게 종로 부임 소감을 밝혔다.

“역사와 전통의 명예가 드높은 종로구는 역대로 훌륭한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지역입니다. 그런 종로에서 배출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곽 위원장은 정치 새내기가 아니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자신의 본적지인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선거구에 출마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총선 정국에서 인터넷상에서는 전국 최고 관심 지역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서 정치권에 첫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득표율 42%를 받으면서도 아쉽게 낙선한 곽 위원장은 이어 올해 6월 지



지난 7월 종로구 대의원 대회에서 공식 추인

“종로가 배출한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입법 성과까지 평가하는 의원 역할 할 터”

방선거에서도 충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했지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도지사 출마표를 던지는 바람에 출마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종로구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하여 3명이 경쟁을 벌이다가 선임되어 전격적으로 부임했다.

과거 1996년 종로구 총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구에 출마를 하여 낙선했지만 2년 후 1998년 종로구 보궐선거로 국회 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어 그 당시 노무현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종로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인사들이 지금도 종로구 현역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곽 위원장으로서는 다소 친근감도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옛날 장인어른과 함께 활동했던 종로구 당원들과의 인연이 아직도 동지적 공감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종로구의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니 매우 위기적이라고 볼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대통령 이하 서

을 시장과 종로 국회의원, 종로구청장, 종로

구의회 의장 등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모두가 반전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시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까지 모두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곽 위원장은 종로구 정치적 상황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 혐지가 되어버린 시점에서 지역위원회를 맡은 것이 숙명적이기도 하다고 평가한다. 자신의 짧은 시절이 고난과 역경의 극복과정인 것처럼 종로에서의 정치활동도 같은 맥락의 느낌이라는 것이다.

“20살 때부터 온 가족을 부양하면 살았습니다. 여동생 학업까지 뒷바라지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 왔습니다”

곽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 일을 하는 가운데 2012년도부터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공익소송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급회사로 통하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벅찬 공익소송을 10년 가까이 벌

였다. 서비스를 털어 공공재인 전기세의 불공정함을 밝히면서 그동안 한전의 누진세 부과에 대한 개편을 이루기도 했지만 아직도 단군 이래 최대 공익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적 판결이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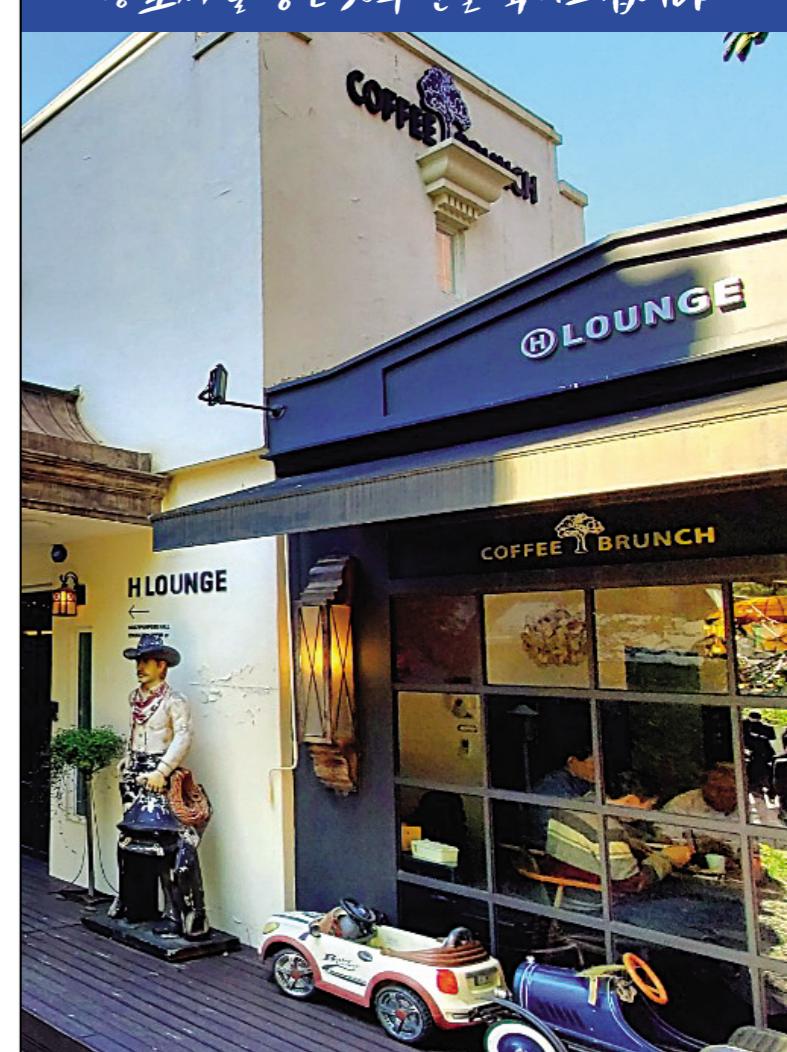
“국민의 삶에 기본 조건이 균등한 사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누진세처럼 서민으로부터 돈을 걷어 부자들을 돋는 형태의 사회는 아주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국민 모두가 균등한 삶의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곽 위원장의 정치적 신조는 ‘삶의 조건 균등’이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또한 부정부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적 삶의 조건이 평등해야 한다는 철학처럼 들린다.

또한 곽 위원장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법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인의 역할이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홍성덕 회장**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H LOUNGE
대표이사 황보문조

종로저널 창간 30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 ④**‘지속’과 ‘생존’을 위한 ‘전략’에 초점****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국회 의정활동은 어렵지 않은데 정치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최재형 국회의원은 정치가 더 어렵다고 웃으며 말한다. 법원장과 감사원장까지 역임하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국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어려운 것은 빙ولي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3월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초선으로 의원 생활을 시작한지 겨우 7개월에 불과하다. 그동안 중앙 정치의 정권교체와 지방선거, 국민의힘 내부 권력다툼 그리고 야당의 정권불복 성 투쟁 등 복잡하고 미묘한 정치 파란 속에서 정치 초년생의 고뇌를 읽을 수도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보건복지부 일이 많습니다. 평상시 어렵고 불우한 국민을 둘보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최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는 자신감과 함께 만족감을 갖지만 정작 정치인으로서의 정치활동 부분은 아직 어색함을 내비친다. 정치적 주장과 선동 또는 정파적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생경함을 느끼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최근 종로구 지역 활동에는 열심이다. 여러 주민 행사에 참여를 하고 틈틈이 종로 곳곳을 방문하여 친교를 나누는 모습을 보인다. 종로구 당원협의회 조직 강화도 추진하면서 지역 신학회도 결성, 본격적인 종로장(?)에 나서는 채비다.

다음은 최의원과의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내용이다.

▶최근 종로구 의정활동 주요 내용은?

종로구 의정활동의 큰 방향은 첫째, 종로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둘째, 종로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고장 프로그램화로 만들어서 지난 10월 초 창신동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무악동 주민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 민원을 접수하는 측면도 있지만 쟁방향 소통을 통해 종로주민과 함께 종로 발전을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고민하고 찾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청, 종로구청의 현장 행정과 호흡을 맞춰 가는데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종로구청과 지역 협안 정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축하하는 최재형 의원(사진 왼쪽).

“종로와 국가의 미래 생각하며 정치”**“종로구민 대변하는 품격있는 자세로”**

책임의회를 갖고, 추진사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청와대 개방에 따른 북악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곧바로 문화재청과 협의, 예산반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시당 간담회에서는 고도 제한 등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완화를 서울시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낮은 자세로 종로주민을 섬기고, 종로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품격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종로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 소감은?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7개월입니다. 종로가 왜 정치 1번지라 불리는지 매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종로구민과의 대화 속에 주민들의 정치참여 의식이나 관심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임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국회 밖에 있을 때는 국회의원들의 의

아니면 제가 더 좋아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굳이 목표라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종로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종로구민은 물론 국익과 공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온라인 법관으로, 또 공직자로 있었습니다. 법관일 때에는 과거를 바라보고 판단을 했지만, 지금 종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종로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종로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 ‘생존 가능성’에 미래 화두가 접종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의 목표는 당연히 ‘지속’과 ‘생존’을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로저널 창간 30주년 축하 메시지.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치 1번지 종로를 지켜온 것은, 그야말로 자유민주 대한민국과 태동을 함께했다 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현대사의 터틀 속에서 중심을 잡아 온 종로저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른 돌을 맞아 한층 원숙해진 종로저널이 있어, 내심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종로저널의 대쪽 같은 정론직필과 따스한 이웃 소식을 기대합니다. (李)

종로저널 창간 30주년 축하 메시지

종로저널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구을 박진 국회의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종로저널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우리 종로 이웃들의 소식을 전해온 이병기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꾸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저널은 1992년 창간한 아래 투철한 언론의 사명을 바탕으로 할 말은 하는 정론직필의 원칙을 지키며 종로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종로가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는 물론 미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었던 종로저널의 역할이 커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로인이여, 종로를 이야기 하자”라는 종로저널의 슬로건은 종로 사람들의 자부심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골목골목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며 행복한 종로, 희망의 종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종로저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복동 종로구의회 전 의장

1992년 지역 언론 불모지 대한민국 그리고 종로구에서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태동한 종로저널의 창간은 종로구민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종로 사회 크고 작은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면서 구민의 목탁 역할을 자임해 온 종로저널의 30년 역사은 참으로 경하스러운 일입니다.

이병기 발행인의 젊은 열정과 패기가 오늘날까지 자리매김하면서 언제나 정론직필 노력하는 모습은 타의 귀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어도 서울의 심장부 종로를 지키겠다는 이병기 대표의 굳센 의지가 지금의 자리를 지켰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나온 30년처럼 종로를 지키며, 종로 주민을 위해서 지역언론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푸른제주워터(주)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장
경영학박사 이택호**

축 종로저널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www.skkconvention.co.kr

[구] 유림웨딩홀

상담문의
02-744-0677

